

“감사의 회복”

오늘 우리는 이 풍요로움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합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마음을 교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 이제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축복과 격려 대신, 아주 엄한 경고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물, 자녀, 안정이라는 선물에 취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안도감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교만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8절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병을 이기고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한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우리를 노예 땅이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불뱀과 전갈이 나오는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 건강 때문에 고통받았던 때, 관계 속에서 눈물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풍요 속에서 겸손할 수 있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18절은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 지혜와 능력, 좋은 기회들은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감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풍성한 음식과 기쁨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단순히 배부른 명절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

추
석

가
정
예
배

인천제일교회

추석가정예배

조용한 기도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찬 송 ----- 589장 ----- 다 같 이

기 도 ----- 말 은 이

성 경 봉 독 --- 신명기 8:11~18 --- 인 도 자

찬 양 ----- 말 은 이

말 씬 ---- “감사의 회복” ---- 말 은 이

찬 송 ----- 588장 ----- 다 같 이

주님의 기도 ----- 다 같 이

신명기 8 : 11~18

- ¹¹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 ¹²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 ¹³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 ¹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를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 ¹⁵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 ¹⁶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 ¹⁷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 ¹⁸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흔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 3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냐
-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듯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